

지리산 종주



이규학 | 수필가

실상사 경내에 도착하니 온 산천을 덮은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일주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젊은 여승이 온화한 모습으로 신선처럼 나타났다. 삼정산 등산길을 물었더니 친절히 가르쳐 주었지만 지형 분간도 어려운 수래길을 따라 고도가 높아지다가, 흡사 무술영화에 본 듯한 대나무 사립문이 달린 암자 앞에 이르렀다.

정적을 깨며 활활 쏟아지는 풍요로운 물줄기가 탐스러워 한바가지씩을 받아 마시며, 갈 길이 바쁜 우리 부부는 오늘 산행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뚜렷한 산길로 몇 번을 꼬불꼬불 돌다가 제비집처럼 농가들이 산비탈에 붙은 마을을 통과하는데, 거센 물줄기가 마을을 쓸어버릴 듯한 기세여서 아찔해 보였으나 주민들의 표정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분위기가 놀라웠다.

이 견성골은 지리산 중에서도 제일 신비스러운 계곡이라 수많은 명승들이 득도하였다는데, 거대한 산줄기에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원시림은 팽팽한 긴장감과 용기를 동시에 전신에 스며들게 했다.

돌다리를 건너다가 너무나 맑은 명경지수에 정신을 빼앗겨 발을 담그는 순간 한여름이지만 발목이 떨어지는 듯한 냉기에 금방 도망쳐 나왔다. 으

속한 기슭에 이끼 덮인 비석 앞 갈림길에서 바위 돌을 밟으며 본격적인 오르막 산행이 시작되었다.

지리산을 5번째로 종주하는 이번 산행은 북쪽에서 남으로 상무주암-삼정산-영원사-명선봉-벽소령-세석평전-신선봉-청학동을 경유하는 1박2일 코스로 약 65km를 걸어야 하므로 체력과 시간이 잘 조화해야 한다. 푸근한 육산이면서 바위길도 많은 명산이라 산꾼들이라면 한 두 번은 산정에서 숙박하며 고난과 의지로 등산의 묘미를 체험하게 된다. 한차례 전신이 땀에 젖으며 올랐더니 시계가 환히 트인 유서깊은 삼불암이 반겨 주었다.

평상에 앉아 잠시 휴식한 후 보살님께 종주할 코스를 한번 더 듣고 뒤편 길로 주능선에 올라섰더니 새로운 풍광에 매료되어 육신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듯했다. 더욱 생기를 돌게 하는 것은 파수병처럼 버티고 선 아름드리 노송인데, 바라볼 수록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구름위로 쳐다보이던 상무주암에 도착하니 화창한 햇볕아래 골짜기를 덮은 운해가 도원경을 헤매는 착각에 별천지에 온 듯 했다. 일년 중 기후가 변하는 백중절기에 이곳에서 감상하는 연하(煙霞)는 대자연의 장관이라 인구에 회자되는 명당이기에 스님들도 이 사찰에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 가슴이 후련하게 펼쳐진 전망과 기묘한 바위와 노송이 이룬 대자연이 70년간 세속에 찌든 나의 육신에도 무한한 활력을 얻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았다.

무거운 배낭까지도 벗어던진 활기찬 기분으로 사찰 뒤편의 바위길로 나무들에 의지하며 해발 1,253m인 삼정산 정상에 도착한 때는 복더위가 기승인 정오였다. 바위 옆에 낡은 안내판을 보는 순간 성취감은 내가 살아 있다는 행복감을 충족시켜 주었다.

이러한 기분에 과도하게 집착해 버리면 입산하여 신선이 되어 버린다는 데, 전국의 명산들을 등산하다가 가끔씩 속세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는 순간도 있었다. 세상살이에 시달려 기력이 소진되면 산의 정기를 받아 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 되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기쁨을 흐뭇하게 간직하고 다시 해발 1,200m에 위치한 영원사로 향했다. 남쪽으로 공룡이 웅크린 모습의 우람한 산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천황봉에서 노고단까지 포물선을 이룬 산군이 엮은 가스층에 가려 진회색을 띠고 있었다. 앞으로 많은 봉우리가 연결된 능선을 돌아야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 명선봉까지는 300여m의 높은 지대를 오르는 지형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나폴레옹도 행군은 위(胃)로 한다고 했다는 데, 으스스한 그늘을 찾아 늦은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다시 배낭을 챙기고 산행을 시작하였다. 잡관목에 숨겨진 능선 길을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2시간 만에 명선봉에 무사히 당도했다.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해가 더위를 조금씩 삼키고 있었다. 다른 방향에서 올라온 등산객들을 만나게 되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세속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에 지나는 산행은 환상으로 떠올라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벽소령 산장에 이르니 붐비던 등산객들도 산장에 들고 있다.

우리 부부는 잠시 숨만 돌리고, 세석산장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선비샘에 어둠이 찾아오는데 추위까지 몸속으로 파고들어 등산객들이 한 사람도 없는 적막이 긴장감을 더해 전신에 엄습하였다.

늑대 이빨처럼 날카롭게 솟은 칠성봉은 지리산 종주의 백미인데, 감상은 커녕 후레쉬를 켜야 지형 분간이 가능했다. 몇 번을 지난 길이지만 당황하였고 조심하면서 빨리 걸어야 하는 난감한 처지를 새삼 후회해 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집 사람에게 경고와 재촉을 거듭하면서 영산봉을 무사히 통과하더니 탈진 상태로 주저앉아 버렸다. 간신히 안정을 찾고 세석산장 불빛을 등대삼아 조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천동번개를 동반하던 번덕날씨가 하늘에 별이 총총하였다. 산장 앞 벤취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14시간동안 40km를 걸어다니는 육신은 물에 빠진 솜처럼 풀어진 상태인데 산장 2층에 담요 한 장이 배정되었다. 등산복을 입은 채 비몽사몽간에 밤을 새우고 창문에 아침 햇살이 비친 6시경에 눈을 떴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김밥을 준비한 후에 삼신봉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울창한 수림속은 물길이 되었으나 상쾌한 아침 공기가 너무나 신선하여 몸속으로 배어드는 순간부터 뿔 듯이 가벼워진 즐거운 산행이 되었다.

6.25때 빨치산 잔비들이 마지막까지 발악했던 비극의 역사를 지닌 곳이라 음양수와 전망바위에는 애절한 원혼들이 방황하는 환상에 시달리다가 가끔씩 청명한 하늘이 쳐다보이긴 했으나 마음을 혼란시켜 몇 번이나 등산로를 잃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심심 산중에 복잡 다양한 지형에서는 남루한 빨치산이 애원하듯이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걸음이 빨라지기도 했다.

잡관목을 헤치며 또한 모퉁이를 도는데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눈길이가 가서 무심히 바라보았더니 빨치산이 은신했던 비트가 나타났는데 정말로 산 기슭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기묘한 위치였다. 주변 지형을 살피면서 주능선을 찾아 지리산의 속살을 면밀히 감상하며 사색에 잠겨 보았다. 육신은 부지런히 활동하고 정신세계는 마음껏 펼쳐보는 등산이야말로 바쁜 현대인에게는 더 없는 취미가 아닐까 한다.

해가 중천에 뜬 시각에 긴 능선을 벗어나고 다시 지리산 전경이 조망되는 신선봉에 도착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수많은 리본들이 유명세를 더해 주는 듯했고, 발 아래로는 청학동 계곡의 울창한 수림은 검푸른 수해를 이루어 진면목을 과시했다.

아쉬운 하산길이지만 급경사여서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물소리가 요란한 중허리에서 청학동 비석을 만나서 개선장군처럼 반가웠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몸을 풀듯이 마을을 둘러보고 긴 골짜기를 벗어났더니 하동행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 약력

- 1937년 경북 청송 출생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 전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 한국문인협회(수필분과) 회원
- 표암문학회 회원
- 저서 : 강물을 낚아 주는 산(기행문집)

